

화학기업, 수출 아니면 “생사위기”

SK · S-Oil, 상장기업 수출 5-6위 기록 ... 수출비중 확대에 내수 추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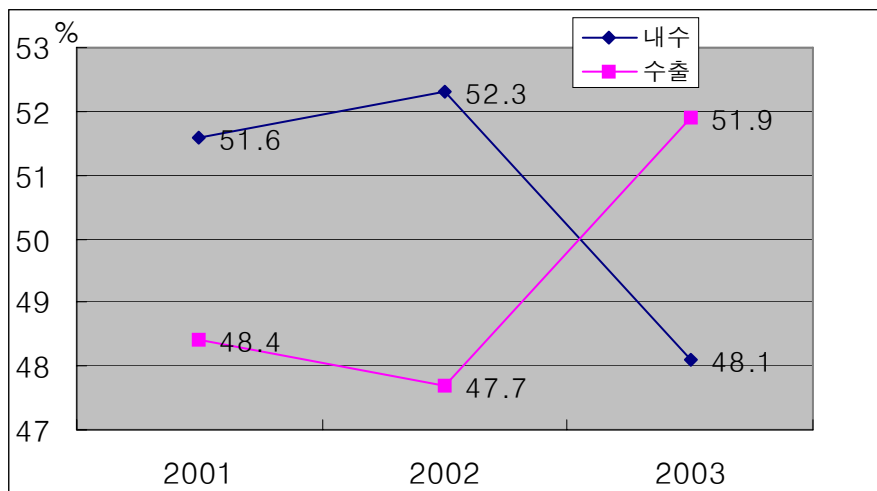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박승복)가 12월 결산 상장기업들의 수출·내수기업간 매출액 변화와 수익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SK가 5조1285억원의 수출액을 기록해 수출액 상위 5위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S-Oil이 그 뒤를 이어 4조2750억원으로 6위를 기록했으며 SK와 S-Oil은 내수부문에서도 각각 8조6601억원과 3조9291억원의 매출액 올려 4와 6위를 차지했다.

수출과 내수의 매출액 비중에서는 최근의 수출 호조세로 인해 수출비중이 2002년의 47.7%에서 4.2%p 증가한 51.9%를 나타냈다.

미국 및 일본, 중국 등의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2003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약 12.5% 정도 증가한 128조원을 기록한 반면, 내수는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해 2002년에 비해 4.8% 감소한 119조원으로 집계됐다.

상장기업의 수출·내수 매출액 비중 추이



그러나 수출기업들은 수출 호조로 인한 매출액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3년에는 환율이 소폭 상승해 외화환산 손실이 증가했다.

외화관련 순이익의 감소는 영업외이익의 감소로 이어져 2002년 대비 순이익은 34.1% 감소한 7745억원을 기록해 11조6377억원을 기록한 내수기업에 비해 수익성면에서는 저조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주영 기자>

<화학저널 2004/04/26>